구역 공과

2022년 8월 14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사야 2장 2-4절)

기도

1.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복음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기도합시다.

2.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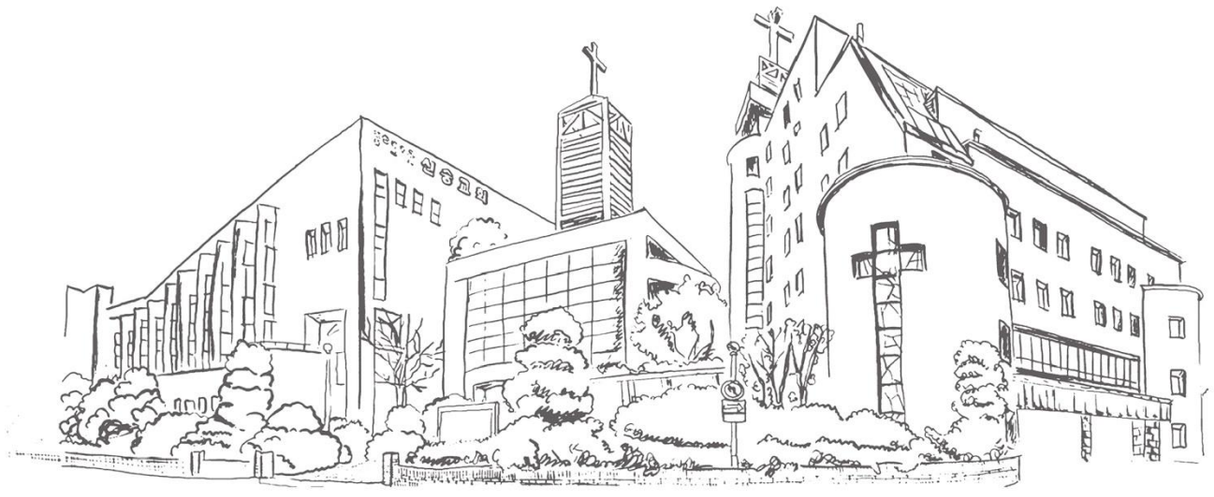
1. 영의 생각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까?

2. 복음의 직분을 감당할 때 받게 된 은혜를 나눠주세요.

신앙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할 때 성도들이 그 말씀을 잘 받을 수 있을지 염려하였습니다. 다행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서신을 통해 회개하였는데,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큰 위로와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입니다.



신승교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19절 (찬27장, 272장)

사도바울은 고린도교회를 향해 복음의 직분은 부끄러운 직분이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직분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17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 안에 거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집니다(17절).

우리의 영은 본래 죄로 인해 죽어 있었고, 진노의 자식, 어둠의 자식이 되어 마귀에게 붙들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시고, 우리 죄 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듭난 우리 영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충만하게 역사됩니다. 하지만 아직 구원 받지 못한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욱 예수 안에 거하면서 믿음으로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첫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주시기 때문입니다(14절). 강권한다는 것은 단단히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단단하게 붙들고 계시고, 이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롬8:35).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힘을 얻어 견고해지고,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죽으심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15절).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고, 우리가 주님의 것이고,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가 세상을 위해 살면 그것은 결국 무너지고, 낡아지고, 실패하고, 결국 후회할 날이 옵니다. 하지만 주를 위해 살면 우리 영이 자라나고 완전해집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은 헛되지 않고, 믿음으로 거두는 날이 옵니다.

셋째,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16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어리석게 보이고, 또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고전2:14). 우리가 육으로 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없고,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직분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18-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18절a).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며, 모든 은혜와 사랑, 복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18절b).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19절).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예수 믿는 성도도 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정죄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면서 생명을 살리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죄하는 교회가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맺 음 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을 때에 우리 영이 거듭났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 받지 못한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주를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화목을 이루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믿음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